

##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황 윤 재

1. 식품 공급 동향 .....	3
2. 식품 소비 동향 .....	8
3. 시사점과 과제 .....	14

---

감 수: 이계임 연구위원 02-3299-4326 lkilki@krei.re.kr  
내용 문의: 황윤재 연구위원 02-3299-4247 yjhwang@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요약 ◇

최근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 탈피와 육류 소비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 1980~2010년간 식용공급량은 곡류가 0.8%, 서류가 1.5% 감소한 반면, 과실류는 3.5%, 육류는 4.0% 증가하는 추세임.

식품자급률은 국내 식품생산이 국내 식품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곡류, 두류 자급률은 빠르게 감소하여 2010년에 각각 28.1%, 11.0%에 불과함. 이에 비해 해조류, 계란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의 자급률은 비교적 높아서 국내 소비의 상당부분을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수입 자유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와 생산 감소 등으로 품목별 자급률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국내 공급식품의 자급 수준에 대한 종합 평가 지표인 에너지자급률도 1970년 79.5%에서 2010년에는 49.3%로 감소함.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실질 식품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별 실질 가계 소비지출액이 감소함.

국민소득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식품소비 외부화 경향으로 가계 식품비 지출 중에서 외식비 비중이 46.5%에 달함. 그러나 소득수준별·품목류별로 지출액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외식, 빵 및 떡류 등 일부 품목은 소득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정도가 큼. 또한 곡물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 탈피 경향이 있으나, 국민 에너지 섭취량의 51.9%를 곡류가 공급하며, 이 중에서도 백미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32.7%를 공급하고 있음.

곡물의 소비와 공급 감소, 지방 섭취 증가, 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자급률과 에너지자급률 감소 등 식품소비와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는 식량자급률, 전통 식문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농산물 안정 공급 기반 구축, 품질경쟁력 향상 등 생산 측면에서의 대책과 소비 측면에서 식생활교육 강화, 한국형 식생활 보급 등으로 전통 식문화 보전, 건전한 식생활 확산과 함께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 식품 공급 동향

### 1.1. 식품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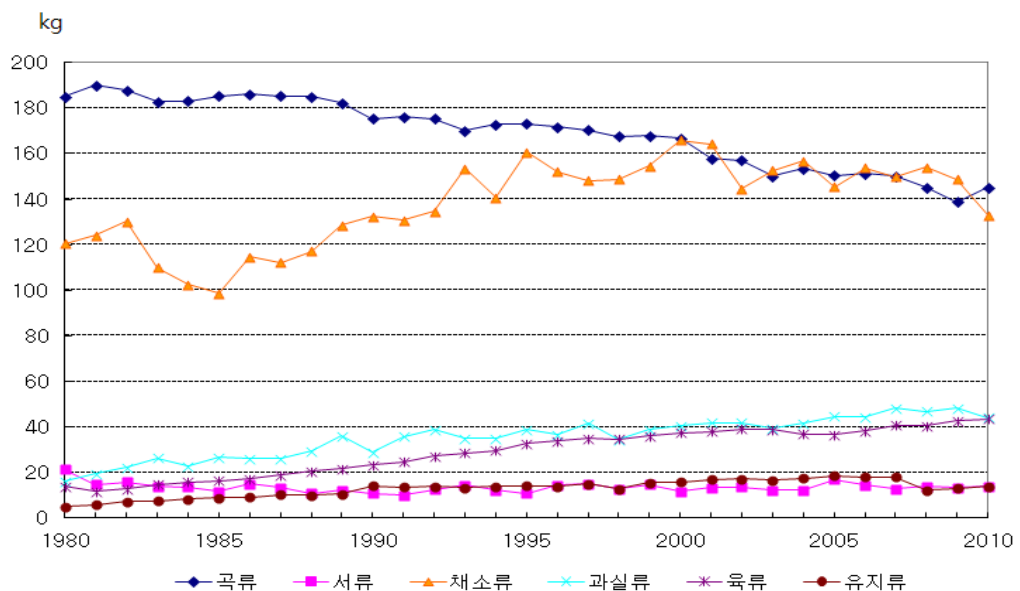
□ 채소류, 과실류, 육류, 유지류 식품공급량은 증가, 곡류, 서류는 감소 추세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곡물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 탈피와 육류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1980~2010년간 곡류(0.8%), 서류(1.5%)의 연평균 식용공급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채소류(0.3%), 과실류(3.5%), 육류(4.0%), 유지류(3.6%)는 증가하는 추세임

- 연간 1인당 곡류 식용공급량은 1980년 185.0kg에서 2010년 145.1kg으로 39.9kg이 감소함. 쌀은 같은 기간 연간 1인당 식용공급량이 132.9kg에서 81.5kg으로 51.4kg이 감소함

- 육류의 연간 1인당 식용공급량은 1980년 13.9kg에서 43.5kg으로 2배 이상인 29.6kg이 증가함

그림 1. 주요 품목의 식용공급량 변화(1인 1년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 2011.

표 1. 연도별 주요 식품공급량 추이(1인 1년간)

단위: kg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곡 류	185.0	185.4	175.4	173.1	166.8	150.5	145.1
쌀	132.9	128.0	120.8	110.6	97.9	83.2	81.5
서 류	21.5	11.8	11.0	11.0	11.8	17.0	13.8
두 류	9.7	10.7	10.3	11.1	10.7	11.4	10.4
종 실 류	0.4	0.5	1.7	1.3	0.7	0.7	0.7
채 소 류	120.6	98.6	132.6	160.6	165.9	145.5	132.9
과 실 류	16.2	26.6	29.0	39.1	40.7	44.7	44.2
육 류	13.9	16.5	23.6	32.7	37.5	36.6	43.5
계 란 류	5.9	6.2	7.9	8.6	8.6	9.1	9.9
우 유 류	10.8	23.1	31.8	38.5	49.3	54.0	57.0
어 패 류	22.5	30.7	30.5	33.4	30.7	39.9	36.6
해 조 류	4.5	6.5	5.7	11.7	6.1	9.6	14.7
유 지 류	5.0	9.2	14.3	14.2	15.9	18.7	13.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 2011.

## 1.2. 식품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은 국내 식품생산이 국민의 국내 식품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

- 식품자급률은 물량자급률, 에너지(칼로리, 열량)자급률 등이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됨
  - 물량자급률은 각 품목의 국내 소비량 중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 에너지자급률은 각 식품에 함유된 에너지량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당해 연도 공급 에너지 중에서 국내산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 곡류, 두류의 국내산 공급비중은 낮으며, 해조류, 계란류, 서류, 채소류는 비교적 높은 수준

- 곡류와 두류의 물량자급률은 2010년에 각기 28.1%와 11.0%로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해조류의 물량자급률은 119.8%에 달하며, 이 밖에 계란류 99.7%, 서류 98.4%, 채소류 90.1%의 순으로 물량자급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즉 곡류, 두류의 경우 국내 소비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해 충당되는 반면, 해조류, 계란류, 서류, 채소류 등은 국내 소비에서 차지하는 국내산 비중이 비교적 높음을 보여줌
  - 과실류(81.0%), 육류(78.6%), 어패류(68.1%), 우유류(66.3%)의 자급률도 비교적 높은 편임
  - 상당 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유지류의 경우 2010년 자급률은 2.6%에 불과함

□ 곡류, 두류 등 주요 식량의 국내산 공급 비중 빠르게 감소

- 국민소득 증가와 수입 자유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와 생산 감소 등에 따라 곡류, 두류 등 일부 품목의 물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국내 곡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쌀의 자급률이 1980년에 8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104.5%로 매우 높은 수준임. 그러나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류의 경우,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전체 곡류의 물량자급률은 1980년 58.7%에서 2010년에는 절반 수준인 28.1%로 감소함
- 두류도 1980년 물량자급률이 47.3%였으나, 2010년에는 1/4수준인 11.0%에 그치고 있으며, 주요 작물인 콩도 2010년 물량자급률이 10.1%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물량이 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 1980년 이후 20여 년 동안 과실류 자급률은 16.7% 감소하였으며, 육류는 15.7%, 채소류는 10.1% 감소함

표 2. 연도별 주요 식품자급률 추이

단위: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곡 류	58.7	49.2	43.8	30.0	30.8	29.4	28.1
쌀	85.7	103.4	108.3	91.1	102.9	96.0	104.5
보리	117.3	63.5	96.1	67.0	46.9	56.4	24.3
밀	2.4	0.3	0.1	0.3	0.1	0.2	0.9
옥수수	3.4	4.1	1.9	1.1	0.9	0.9	0.9
서 류	99.9	109.0	100.0	98.7	98.9	98.3	98.4
두 류	47.3	24.8	24.5	11.7	8.2	10.7	11.0
콩	43.4	22.5	20.1	9.9	6.8	9.8	10.1
종 실 류	68.7	105.5	86.3	44.7	34.2	29.6	30.7
채 소 류	100.2	98.0	98.9	99.2	97.7	94.5	90.1
과 실 류	97.7	93.6	102.5	93.2	88.7	85.6	81.0
육 류	94.3	99.6	92.9	89.2	83.9	81.6	78.6
쇠고기	75.4	97.5	53.6	50.8	53.2	48.1	43.2
돼지고기	98.7	100.0	100.3	96.6	91.6	83.7	81.0
닭고기	100.0	100.0	100.0	98.1	79.9	84.3	83.4
계 란 류	99.9	100.0	100.0	99.9	100.0	99.3	99.7
우 유 류	101.9	100.6	92.8	93.3	81.2	72.8	66.3
어 패 류	137.4	129.6	121.7	100.4	87.7	60.0	68.1
해 조 류	178.0	158.5	172.8	122.2	132.6	131.0	119.8
유 지 류	17.9	15.5	8.0	4.8	3.0	2.8	2.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 2011.

## □ 국내산 식품에 의한 에너지 공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품목류별 물량자급률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와 함께 국내 공급식품의 자급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에너지자급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즉 품목별로 국내 소비에서 국내산으로 충당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국내 식품소비에서도 국내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임
  - 에너지자급률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10년(잠정) 49.3% 수준으로 1970년 대비 30.2%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국내산 식품에 의한 에너지 공급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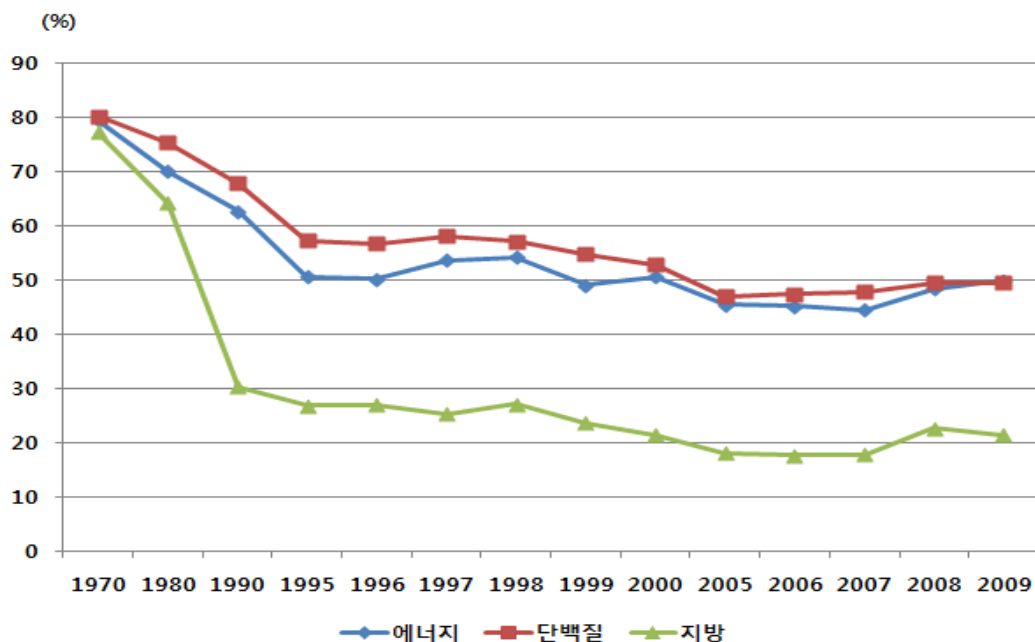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에너지자급률 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2007년과 비교해 볼 때 2010년 에너지자급률은 오히려 다소 증가함
  - 2007년 에너지 자급률은 44.1%이며, 2010년(잠정) 에너지 자급률은 2007년 대비 5.2%가 증가한 49.3%였음

#### □ 단백질과 지방 자급률은 급속하게 감소

- 두류, 육류, 유제품 등 단백질과 지방의 주요 공급원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에서의 국내산 공급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10년 47.6%로 감소하였음. 지방 자급률은 1980년 64.2%에서 1990년은 30.3%로 10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다시 20% 이하로 감소하였음
  - 2009년, 2010년에 단백질과 지방 자급률은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임

그림 2. 에너지, 단백질, 지방 자급률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 2011.

---

## 2. 식품 소비 동향

### 2.1. 식품 지출 구조의 변화

#### □ 실질 가계소비 지출은 증가,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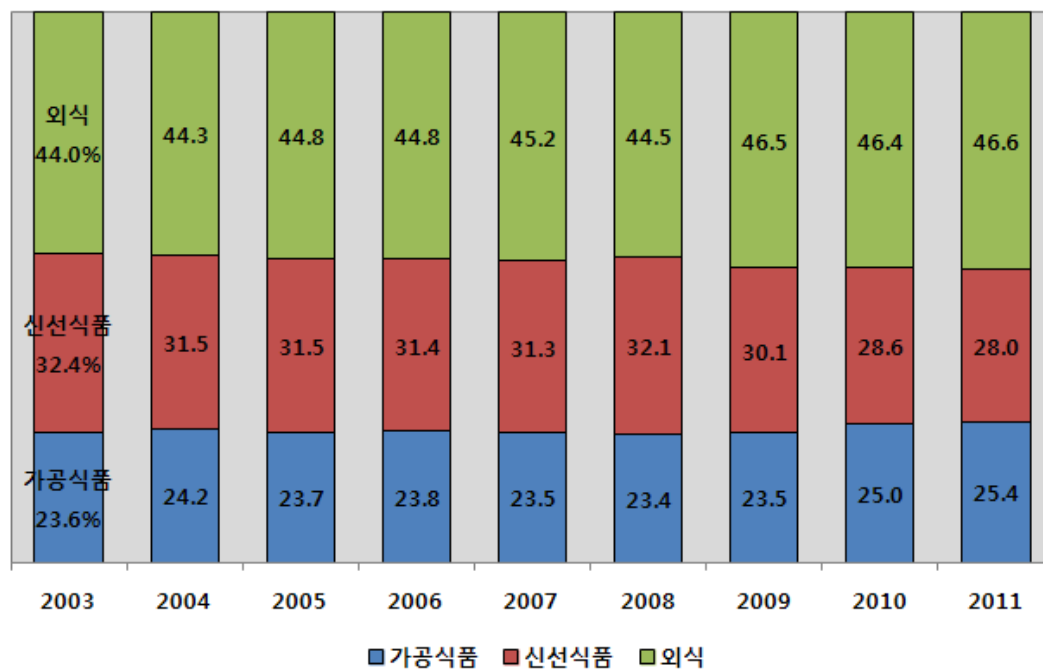
- 소비자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2003년에 2,101천 원에서 2011년 2,301천 원으로 증가함. 그러나 월평균 실질 식품비 지출은 2003년 641천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 604천 원으로 나타남
  - 2003년 대비 2011년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액은 200천 원(8.7%)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37천 원(6.1%) 감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득 증가폭에 비해 식품소비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이에 따라 가계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감소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발전 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식료품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03~2011년간 연평균 가계의 실질 소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1.1%인데 비해, 실질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0.7%였음

#### □ 가계 식품비 지출에서 외식비 비중 높은 편

- 가계 식품비 지출을 식품 유형별로 보면, 식품 소비 외부화 경향을 반영하여 외식비가 2011년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외식비 비중은 2003년 이후 4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등이 확대되면서 식품소비 중에서 외식비의 비중이 증가함. 외식지출 비중은 1990년에 2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 44.0%에 달함.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됨

- 이 밖에 신선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 32.4%에서 2011년에는 28.0%로 4.4% 감소함. 반면 가공식품 지출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11년에는 25.4%로 2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신선식품 지출비중이 가공식품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그러나 식품소비의 간편화 경향을 반영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선식품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03년에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지출비중 간 격차는 8.8%였으나, 2011년에는 이들 식품 간 지출비중의 격차가 2.6%로 감소함

그림 3. 월평균 식품소비 지출구조 변화



#### □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소비 지출액은 식품류별로 차이

- 2011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식품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소비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폭은 식품류별로 차이가 있음

- 중간소득계층(3분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빵 및 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유제품 및 알, 기타식품, 당류 및 과자, 차·음료·주류 등으로, 외식과 기호식품이 주를 이룸.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정도가 작은 품목은 조미식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유지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임
- 저소득계층은 쌀 등 곡물, 조미식품, 유지류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식품류를 주로 구매하며, 고소득계층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필수재 이외에 외식과 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함

표 3. 소득계층별 월평균 식품소비 지출액 비교, 2011

단위: 원, %

구 분	1·2분위		3분위		4·5분위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소비지출	1,569,074	66.8	2,350,615	100	3,236,792	137.7
식품지출	462,495	71.6	646,180	100	818,595	126.7
곡물 및 곡물가공품	35,198	96.4	36,519	100	39,814	109.0
빵 및 떡류	14,411	67.9	21,231	100	27,420	129.1
육류 및 육류가공품	45,808	76.0	60,272	100	74,155	123.0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2,743	91.6	35,764	100	42,592	119.1
유제품 및 알	22,753	72.1	31,559	100	37,610	119.2
유지류	2,436	89.3	2,729	100	3,097	113.5
과일 및 과일가공품	29,075	74.3	39,154	100	50,944	130.1
채소 및 채소가공품	35,616	96.3	36,978	100	39,978	108.1
해조 및 해조가공품	3,736	87.5	4,272	100	5,043	118.0
당류 및 과자류	18,309	69.2	26,455	100	30,124	113.9
조미식품	15,725	117.2	13,418	100	15,043	112.1
기타식품	7,344	71.1	10,330	100	12,263	118.7
차·음료·주류	21,763	73.0	29,819	100	34,647	116.2
외식	177,580	59.7	297,680	100	405,868	136.3

주: 3분위 소득계층의 지출액을 기준(=100)으로 1·2분위와 4·5분위 소득계층의 지출 수준 비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2.2. 영양소 수요구조 변화

### □ 식품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식품영양소 수요구조도 변화

- 우리나라 국민의 1인 1일당 에너지 섭취량은 1985년에 1,936kcal이었으며, 이후 1,800~1,900kcal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0년에는 2,051kcal로 에너지 섭취량이 다소 증가함. 특히 식생활의 서구화로 지방에 의한 에너지 섭취가 1985년 29.5g에서 2010년에는 44.8g로 급속히 증가함
- 에너지 섭취량의 주요 공급원은 곡류로 전체의 51.9%(1,063.4kcal)를 공급하며 이 밖에 육류(109.3kcal), 주류(100.3kcal)의 순이었음
  - 쌀 소비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커서 백미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32.7%를 공급함
  - 이 밖에 돼지고기, 라면, 소주, 빵, 우유, 떡, 국수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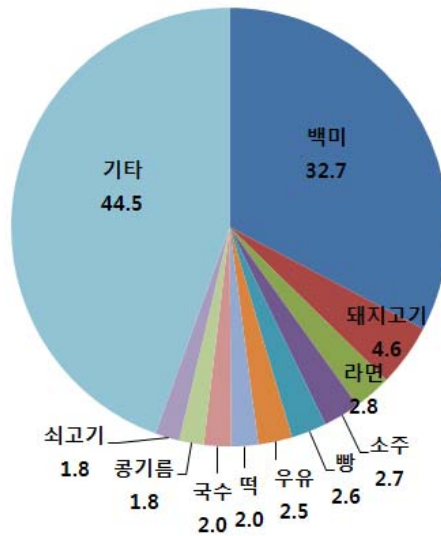
표 4. 식품영양소 수요구조 변화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2007	1,810	65.4	37.7	462	12.9	711	1.24	1.05	14.7	92.8
2008	1,838	65.8	38.8	476	12.9	721	1.22	1.11	14.9	96.3
2009	1,883	67.6	40.5	492	13.4	766	1.26	1.20	15.4	100.2
2010	2,051	74.0	44.8	530	14.6	806	1.37	1.29	17.0	106.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그림 4. 에너지 섭취량의 주요 공급원별 식품

단위: %



주: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섭취분율(%), 만 1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 대부분의 영양소가 권장 수준 이상을 섭취하나, 칼슘은 미달되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영양소 섭취구조 차이
  -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영양수준 향상과 함께, 국민전체로 볼 때 대부분의 영양소를 권장수준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칼슘은 73.9%로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이 낮았음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이 99.1%, 단백질 160%, 이 밖에 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100~140%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음
  - 칼슘 섭취량의 경우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봐도, 전반적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섭취량이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칼슘 이외의 영양소의 경우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섭취량 비율에 차이가 있었음
  -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은 대부분의 영양소가 권장수준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데 비해, 여성은 에너지(93.4%), 리보플라빈(97.1%) 섭취량이 권장섭취량 대비 100%범위 이하였음. 연령별로 만 70세 이상은 단

백질, 철을 제외한 대부분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권장섭취기준에 비해 낮았으며, 만19~29세 연령층의 경우 에너지섭취 수준이 권장수준의 92.3%에 불과하였음.

- 여성과 만19~29세 연령층에서의 낮은 에너지 섭취수준은 젊은 여성층의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음

-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중상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칼슘 이외 영양소의 실제섭취 수준은 권장섭취기준 이상이었으나, 중하 이하 소득수준에서는 에너지, 칼슘, 리보플라빈의 실제섭취수준이 권장섭취기준 미만이었음

표 5.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2010

단위: %

구 분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전 체	99.1	160.0	73.9	142.6	123.4	125.9	101.0	118.3	113.2	
성 별	남성	104.8	178.1	78.8	166.3	131.1	141.6	105.0	131.6	119.0
	여성	93.4	141.8	68.9	118.7	115.8	110.1	97.1	104.9	107.5
연 령 별	1~9세	103.9	231.4	76.9	114.1	141.9	161.3	147.8	131.8	166.1
	10~18세	100.2	168.1	60.4	93.0	96.8	141.6	107.2	115.4	94.3
	19~29세	92.3	154.5	70.9	124.9	112.9	130.1	104.3	122.7	102.7
	30~39세	102.6	166.5	78.8	136.9	133.3	131.8	105.2	129.1	117.8
	40~49세	99.1	156.3	82.7	150.2	132.9	124.8	100.3	124.9	117.1
	50~59세	103.8	154.0	80.2	194.7	147.4	116.4	94.9	117.5	122.9
	60~69세	98.5	133.6	71.9	179.7	119.9	103.0	78.2	100.0	109.1
	70세 이상	90.3	107.0	57.0	152.0	82.0	80.4	57.1	79.4	69.9
소 득 수 준 별	하	95.7	152.0	67.7	110.6	110.6	121.6	96.3	111.3	105.5
	중하	98.2	156.0	72.8	117.2	117.2	121.4	98.5	115.2	109.8
	중상	100.8	163.5	76.9	130.6	130.6	127.9	103.2	122.4	118.1
	상	102.9	170.6	79.4	139.2	139.2	134.3	107.8	126.0	122.9

주: 소득수준은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

### 3. 시사점과 과제

#### □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식품소비 외부화와 서구식 식생활 확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

- 식품소비 외부화와 서구식 식생활 확산의 영향으로 가계 식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지방질 섭취가 증가함
  - 가계 식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6.6%에 달함. 식생활 서구화로 지방 섭취는 1985년 29.5g에서 2010년에는 44.8g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비만과 성인병 발생 증대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함
- 쌀 등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문화로 인해 곡류에 의한 에너지 섭취가 전체의 51.9%로 여전히 비중이 큰 편이며, 백미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32.7%를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쌀 등 곡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곡물 중심의 한국형 식생활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외식과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기호식품 소비 격차가 뚜렷

- 소득계층별 비교에서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외식과 함께 육류 소비가 증가하며, 빵 및 떡류, 당류 및 과자, 차·음료·주류 등의 기호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에 중간소득계층(3분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빵 및 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유제품 및 알, 기타식품, 당류 및 과자, 차·음료·주류 등이었음
  - 반면 조미식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유지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 식품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품목별 식품공급량도 변화

- 곡물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 탈피 경향을 반영하여, 식품공급 측면에서도 채소류, 과실류, 육류, 유지류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곡류, 서류 공급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 1980~2010년간 곡류(0.8%), 서류(1.5%)의 연평균 식용공급량은 감소하였으나, 채소류(0.3%), 과실류(3.5%), 육류(4.0%), 유지류(3.6%)의 연평균 식용공급량은 증가함

## □ 식품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곡물의 식용공급량 감소, 육류 식용공급량과 지방 섭취 증가 등은 식량자급률, 전통 식문화, 국민 건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쌀 등 곡물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중과 식용공급량이 여전히 큰 편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비해 육류의 식용공급량은 증가하는 추세임
  - 쌀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중은 2011년 32.7% 수준이며, 전체 곡류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중은 51.9%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그러나 곡물 중심의 한국형 식생활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곡물 식용공급량은 1980년 185.0kg에서 2010년 145.1kg으로 39.9kg이 감소하였으며, 쌀은 같은 기간 132.9kg에서 81.5kg으로 51.4kg이 감소함
  - 육류의 연간 1인당 식용공급량은 1980년 13.9kg에서 43.5kg으로 2배 이상인 29.6kg이 증가함
- 곡물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중과 식용공급량 감소와 함께 당질에 의한 에너지 섭취가 감소하는 반면, 식생활 서구화로 지방질 섭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비만, 성인병 발병 증대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에 의한 에너지 섭취는 1985년 29.5g에서 2010년에 44.8g으로 15.3g이 증가하였음

- 
- 곡류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쌀의 자급률이 2010년에 104.5% 수준임. 그러나 쌀을 제외한 대부분 곡류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으로 전체 곡류 물량자급률은 2010년에 28.1%에 불과함. 특히 장기적으로 쌀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식용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어, 식량자급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식량자급률 감소는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 주요통계(2012)에 의하면,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 등으로 2011년 쌀의 물량자급률은 83.0%, 전체 곡물자급률도 22.6%로 감소함

**□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할 필요**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품질경쟁력 향상 등 생산 측면에서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소비 측면에서 식생활교육 강화, 한국형 식생활 보급 등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전통 식문화 보전, 건전한 식생활 확산과 함께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 2012년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욱,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1. 26

발 행 2012. 11. 27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mailto: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65-5 93520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